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대의 대만 인식 비교 : 중국 주석의 대만 관련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류진귀* · 양기웅**

• 요약 •

이 논문은 중국국제방송에 속하는 네트워크 뉴미디어이자 주로 중국 대륙과 대만의 교류를 보도하는 해협비홍중문넷(海峽飛虹中文網)에 실린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주석 시기의 대 대만 연설문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빈도분석 및 담론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빈도조사”를 통해 후진타오 주석의 모든 연설문에서 “통일,” “대독,” “분열”과 같은 키워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평화,” “발전,” “중화,” “동포”와 같은 키워드를 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통일,” “대독,” “분열”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며, 특히 제2차 임기 동안 이러한 키워드들을 더 자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시진핑 주석의 제2차 임기 동안 대만에 대한 연설문 수량도 적었으며, “무력사용”과 같이 강경한 키워드를 포함한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담론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주석은 임기 동안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따뜻한 태도를 취했으나,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 특히 제2차 임기 동안 대만에 대한 연설문은 냉담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발견했다.

주제어 : 주석, 대만, 연설문, 빈도조사, 담론분석, 중국

I. 서론

2013년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시작된 “시진핑 시대”는 전임 주석인 후진타오 주석 시대와 비교할 때 대내외 정책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며, 특히 대만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에서 권위를 유지

* 한림대학교 국제학 박사과정/중국산동청년정치대학교(中国山东青年政治学院) 부교수(주저자)

**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교수(교신저자, Kwyang@hallym.ac.kr)

하며 외교 문제에서도 주석의 역할과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자신의 인식과 생각을 국내 외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 시기의 “대 대만 연설문(對臺灣演說文, 대만에 관한 연설문, 이하 연설문)”을 통해 두 주석이 가지고 있던 대만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설문의 내용은 그 당시의 배경, 국내외의 정세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주석의 인식, 견해, 선호 등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중국 주석들은 연설문을 통해서 국내외에 대만정책을 설명한다. 연설문을 통해서 역대 대통령의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선행 연구에서도 보여주듯이¹⁾, 연설문 분석은 당대 정세와 주석들의 개인적인 인식과 정책선호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연설문 중에서 분열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을 선택한 것이다.

“양안(兩岸, 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한다.(중략) 평화 통일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대만 인민에게 희망을 건 것도 포기하지 않고 대독(臺獨, 대만 독립) 분열 활동을 반대하며 타협하지 않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이란 주제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후략)”(후진타오 주석의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된 30주년 기념』(告台灣同胞書²⁾) 연설문 중에서 2008/12/31)

“대독 분열의 도모를 절대 반대한다. 중국 인민은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조국에서 분할하는 것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 대독 분열 행위는 양안 동포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쳐서 철저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후진타오 주석 제2임기 말기에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연설문 중에서 2012/11/8)

“중국인은 중국인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큰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의 실현을 도모하여 평화적 통일은 양안 동포와 전 민족에게 가장 유익하다.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하는 선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외부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이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시진핑 주석의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된 40주년 기념』 연설문 중에서 2019/1/2)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중국인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가장 큰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의 실현을 도모하여 절대 무력 사용 포기를 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하는 선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외부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이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시진핑 주석 제2차 임기 말기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연설문 중에서 2022/10/16)

1) 황창호, 이혁우, 임동완.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9권,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 p.29.

2) “全國人大常委會《告台灣同胞書》(1979年1月1日)”, 新華網, <http://tga.mofcom.gov.cn/article/zyjh/200603/20060301721770.shtml>(검색일: 2023.09.16).

이 네 가지 연설을 비교해보면 “대독 분열(臺獨分裂, 대만 독립과 조국 분열)”에 대한 표현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 기념』 연설문에서 2008년의 후진타오 주석은 “분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타협하지 않고” 대만 동포에 대해서는 “대만 인민에게 희망을 건 것도 포기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2019년 시진핑 주석 연설에서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외부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두 주석의 제2차 임기 말 연설문을 보면 2012년 후진타오 주석은 “분열”에 대해서는 “대독 분열의 도모를 절대 반대한다”는 것과 동포에 대해서는 “대독 분열 행위는 양안 동포의 공동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붙였다. 그런데 2022년 시진핑 주석 연설에서는 “절대 무력 사용 포기를 하지 않고”, “외부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과 같은 내용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두 주석의 연설문을 비교 분석하면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대만 인식과 대만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3년 후진타오 등장부터 2022년 시진핑의 제2차 임기 말까지, 총 43 차례의 대만 연설문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만 언급을 정리하고 빈도분석과 담론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II. 분석 방법과 대상

아래의 <표 1>과 <표 2>는 각각 후진타오와 시진핑 10년 동안 대대만 연설문과 각 연설문의 일자, 장소, 주제, 주석임기,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주석들의 연설문은 대만 지도자, 대표단과 회견을 하거나 기념활동이나 기념회의 혹은 정기적 정치적 회의에서 발표된다.³⁾

<표 1> 후진타오 주석의 대 대만 연설문

번호	날짜	장소	주 제	임기	출처
1	2003.3.11	인민대회당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대만 대표팀과 대화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⁴⁾

3) 대 대만 연설문은 주로 중국 정치협상대회, 중국 인민대표대회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많이 발표하고 또한 대만에서 온 지도자, 대표단과 만날 때, 특정한 기념활동을 실시하는 때에 발표하는 것도 있다.

4) 海峽飛虹(中文網).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B5%B7%E5%B3%A1%E9%A3%9E%E8%99%B9/2578054?fr=ge_alia(검색일: 2023.09.16).

번호	날짜	장소	주 제	임기	출처
2	2005.3.4	인민대회당	제10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3차 회의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3	2005.4.29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주석인 련잔(連戰)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4	2005.5.12	인민대회당	친민당 주석인 쑹추위(宋楚瑜) 방문단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5	2005.9.3	인민대회당	중국 항일전쟁 승리60주년 기념대회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6	2006.4.16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련잔5)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7	2007.4.28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련잔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8	2007.10.15	인민대회당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9	2008.3.4	인민대회당	제11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0	2008.4.29	조어대국빈관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련잔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1	2008.5.28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주석인 우포슝(吳伯雄)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2	2008.6.13	조어대국빈관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⁶⁾ 이사장인 장빙쿤(江丙坤)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3	2008.12.31	인민대회당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 30주년 기념대회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4	2009.11.14	싱가포르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련잔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5	2010.4.29	상하이서교빈관	상하이박람회 개막시를 참가하는 련잔, 우포슝, 쑹추위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6	2011.11.11	하와이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련잔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5) 連戰, Baidu, https://baike.baidu.com/link?url=yZW3mLzKv0LlOGvsf-FRRepy26vKTgcAM0hljowV1uyt56qHOrTmp4iAMkXcuvNAE-lPEqNjeslOGKkZmskj5Y7B0yKre_cz-XsYYdn8CV4K(검색일: 2023.09.16).

6) 海峽交流基金會,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B5%B7%E5%B3%A1%E4%BA%A4%E6%B5%81%E5%9F%BA%E9%87%91%E4%BC%9A/2441340?fr=ge_ala(검색일: 2023.09.16).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대의 대만 인식 비교: 중국 주식의 대만 관련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류권귀·양기웅)

번호	날짜	장소	주 제	임기	출처
17	2012.9.7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헨잔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8	2012.11.8	인민대회당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9	2013.2.26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헨잔의 회견	제2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표 2〉 시진핑 주식의 대 대만 연설문

번호	날짜	장소	주 제	임기	출처
1	2013.4.8	아시아보아 포럼	대만양안공동시장 기금회 ⁷⁾ 명예회장인 소만장(蕭万长)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2	2013.6.13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명예 주석인 우포송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3	2013.10.6	발리 섬	대만양안공동시장 기금회 명예회장인 소만장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4	2014.2.18	조어대국빈관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헨잔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5	2014.5.7	인민대회당	친민당 주석인 쑹추위 방문단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6	2014.9.26	인민대회당	대만 평화통일 단체 방문단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7	2014.11.3	푸젠핑탄	푸젠핑탄(福建平潭) ⁸⁾ 을 시찰하고 대만 투자자들을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8	2014.11.9	인민대회당	대만양안공동시장 기금회 명예회장인 소만장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9	2015.5.4	인민대회당	국민당 주석인 주리룬(朱立倫)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0	2015.9.1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헨잔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7) 两岸共同市场基金会,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4%B8%A4%E5%B2%B8%E5%85%B1%E5%90%8C%E5%B8%82%E5%9C%BA%E5%9F%BA%E9%87%91%E4%BC%9A/7130237?fr=ge_ala. (검색일: 2023.09.16).

8) 福建平潭,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5%B9%B3%E6%BD%AD%E5%8E%BF/3450025?fr=ge_ala. (검색일: 2023.09.16).

번호	날짜	장소	주 제	임기	출처
11	2015.11.7	싱가포르	대만 총통인 마잉주(馬英九) ⁹⁾ 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2	2016.3.5	인민대회당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상하이대표팀의 심의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3	2016.7.1	인민대회당	중국 공산당 성립 95주년 기념대회 연설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4	2016.11.1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주석인 홍슈주(洪秀柱)의 회견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5	2016.11.11	인민대회당	손중산(孫中山) 선생 탄신 150주년 기 념회의 연설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6	2017.10.15	인민대회당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해협비홍중문넷 (海峽飛虹中文網)
17	2018.7.13	인민대회당	중국 국민당 명예주석인 헨잔의 회견	제2차	양시망(央視網) ¹⁰⁾
18	2018.12.18	인민대회당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의 연설	제2차	신화망(新華網)
19	2019.1.2	인민대회당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 40 주년 기념대회 연설	제2차	양시망(央視網)
20	2019.3.10	인민대회당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제2차	신화망(新華網)
21	2019.9.30	천안문 광장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 기념 초 대 연회의 연설	제2차	신화망(新華網)
22	2021.7.1	인민대회당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기념대회 의 연설	제2차	해외망(海外網)
23	2021.10.9	인민대회당	신해혁명(辛亥革命 ¹¹⁾)110주년 기 념대회의 연설	제2차	양시망(央視網)
24	2022.10.16	인민대회당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신화망(新華網)

연설합계 43차례

9) 馬英九, Baidu, https://baike.baidu.com/link?url=yC83NcY4Y-D0gqSaX-o4hppagURPeTCmlATNfYZe-wRLH5HEW_sFbpUROwJ5AeWWIG9eGC9hEXI2G6tABEdLolx0y2DCEg_IDhN1rlbMdlSyzWVMtbq3CocUxCAUAml(검색일: 2023.09.16).

10) 央視網, www.cctv.com/(검색일: 2023.09.16).

11) 汤水清, “对辛亥革命历史意义的新思考”, 『江西社会科学』, 第10期, 2011, p7.

“담론”이란 단어는 학문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서 언어학자에게는 언어의 구조와 단어나 어절이 결합되어 문장을 이루는 방식을 다루는 구문론과 관련된 언어이다¹²⁾. 따라서 담론분석자들은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을 이용하여 화자와 저자가 청자와 독자의 해석과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 실마리나 단서(즉, 구문과 담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담론분석은 하나의 언어에 대한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 방법론은 주로 언어가 어떻게, 또한 왜 그렇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학에 속하지만 사회학, 여성학, 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담론분석은 사용하는 범위는 넓고 사회문제, 문화 연구 등 분야에서 쓰이기도 하고 정치 연설문, 광고문, 신문기사, 교과서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론분석이 첫 번째는 누구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연구하는데 인명, 지역 명칭, 국가 명칭을 부르는 것이 이 범위에 속한다. 두 번째는 어떤 언어적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를 연구하는데 다양한 어휘와 문체를 골라 의사를 표시하는 이유를 연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호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이미지와 광고분야에 많이 사용한다. 또한 담화가 어떻게 사회적 조건들을 생산/형성하고 현 상황을 영속화, 재생산 또는 정당화하는데 기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의 시작과 전개 및 공고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 지에 대해서 언어 분석을 통해서 밝혀낸다¹³⁾. 다시 말하면, 정치 연설문은 인명과 같은 명칭도 있고 골라서 사용되는 단어도 있어서 담론분석의 연구방법의 좋은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후진타오와 시진핑 두 주식의 연설문은 “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용의 회수, 사용의 시기가 달라서 이를 통해서 주식들의 개인적인 인식과 정책적 선호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발견되는 과정 및 이슈를 언어학 차원에서 분석한다¹⁴⁾.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들의 내적 관계분석, 외적 관계분석, 담론수준의 분석으로 구성된다. 내적 관계분석은 의미론적 관계, 문법적 관계, 어휘적 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고 외적 관계분석은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적 실천이 담론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헤게모니를 재구성, 재구조화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담론 수준의 분석은 “장르”, “담론들”, “스타일”을 포함한다. “장르”는 텍스트가

12) Gee, James Pau 지음, 이수원, 임민정, 박수경 역. 『담론분석 입문: 이론과 방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7, p.40.

13) 최윤선. 『비판적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14, p.5.

14) 김나영,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담화 관행 비교를 중심으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6호,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2021, p.185.

권력관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고 “담론들”은 같은 현상에 서로 다른 묘사를 분석하는 것이고 “스타일”은 개인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이다¹⁵⁾.

위에 언급하는 것처럼 담론분석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긴밀히 연결하고 언어를 연구 하면서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방법론도 흡수하면서 넓은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Ⅲ.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대의 대만 인식

다시 말하면, 연설문을 분석한 연구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특정 이벤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감성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¹⁶⁾. 이 글이 중국 두 집권자인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이유는 두 수뇌의 대 대만에 대한 인식, 즉 대만에 대해 실시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미래의 예측하기 위해서다. 연설문을 통해 두 주석들의 머릿속을 엿보면 대만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가 잘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후진타오 주석의 제2임기 말기의 연설문과 시진핑 주석의 제2임기 말기의 연설문의 차이이며, 후 주석은 “대독 분열의 도모를 절대 반대한다. 중국 인민은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만을 조국에서 분할하는 것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시 주석은 “우리는 가장 큰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의 실현을 도모하여 절대 무력 사용 포기를 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하는 선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외부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이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두 주석의 연설을 비교해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더 강경한 의지,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가 잘 나타난다. 따라서 두 주석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것이 중국 최고 집권자의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직접적으로 보고 들 수 있고 개인의 감정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명백하고 유용한 결과가 신속히 나올 수 있다.

위의 <표 1>과 <표 2>를 비교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첫째, 두 주석의 대만 연설문의 횟수와 발표한 장소를 보면 당시 양안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 제1차 임기(2003~2007년)에 모두 8번 연설문을 발표하고 장소는 모두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이다. 인민대회당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회의장이자 매년 중요한 국가 회의가 열

15) 양기웅, 안정화. “탈냉전기 일본총리의 한반도 및 한일관계 인식변화(1991~2013): 국회소신표명 연설 분석”, 『한림일본학』, 제25권, 일본연구소, 2014, p.270.

16) K. M. Davis and W. L. Gardner, “Charisma under crisis revisited: Presidential leadership, perceived leader effectiveness, and contextual influences,” *The Leadership Quarterly*, Vol.23, No.5, 2012, pp. 918-933.

리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국가 주석 등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연설문과 보고서를 발표한 장소이자 국민을 회견한 장소이다. 정치적 회의와 중요한 기념활동 외에, 또한 대만(臺灣)에서 온 중국 국민당 주석인 쉰잔(連戰)을 만났을 때도 인민대회당에서 진행했다. 후진타오 주석 제2차 임기(2008~2012년)에는 모두 11번의 연설문을 발표하는데 장소는 베이징, 상하이, 하와이, 싱가포르, 블라디호스토크 등으로 다양해졌다. 2005년에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의 파빙을 한 후에 서로 간의 교류, 회견, 대화가 많아져서 다양한 장소에서 교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제1차 임기(2013~2017년)를 보면, 모두 16번이고 베이징, 해남도(海南島, 아시아 보아 포럼을 개최한 장소), 발리 섬, 푸젠(福建, 중국 남방의 한 지역 이름이고 대만과 가장 가깝다), 싱가포르 등 장소에서 연설문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의 제2차 임기(2018~2022년)에는 인민대회당에서만 연설문을 발표했다.

둘째, 연설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회견 연설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기 19번의 연설문을 분석하면 회견 연설문은 12번, 기념활동 연설문은 2번, 정치 회의 연설문은 5번이다. 2004년에는 한번도 연설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고 총격사건¹⁷⁾까지 발생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2년 11월에 총서기(总书记)가 되고 2003년 3월에 국가 주석(国家主席)이 되고 2004년 9월에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中央军事委员会主席)이 되어서 권력의 절정에 이르렀다. 시진핑 주석 시기 24번 연설문을 보면 회견 연설문은 13번, 기념활동 연설문은 7번, 정치 회의 연설문은 4번이다. 2020년에는 한번도 연설문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COVID-19) 상황이어서 연설문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회견 상대방을 분석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유하는 대만의 지도자들임을 알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의 12번의 회견 연설문은 국민당 주석(명예 주석)인 쉰잔(連戰)과 회견한 횟수가 9회, 국민당 주석인 우포슝(吳伯雄)과 회견한 횟수가 1회, 친민당 주석인 쑹추위(宋楚瑜)와 회견한 횟수가 1회, 해기회 이사장인 장빙쿤(江丙坤)과 회견한 횟수가 1회이다. 중국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一個中國原則, 중국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국가에 속한 것)을 견지해서 중국 공산당의 주장과 공통점이 있어서 양당(兩黨)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친민당은 국민당을 탈당한 쑹추위(宋楚瑜)가 친민당 주석이 되어 국민당과 관계가 여전히 긴밀하다. 해기회(海峽交流基金會, Straits Exchange Foundation)는 양안 관계를 개선하고 촉진한 기구이고 민간조직의 성격도 띠어서 중국 주석과 회견할 수 있었다.

시진핑 주석의 13번의 회견 연설문 상대를 살펴보면, 중국국민당 명예 주석인 쉰잔(連

17) 楊卓林, “2004年台灣地區選舉的影響分析”. 『深圳职业技术学院学报』, 第3期, 2004, p.58.

战)과 3회, 중국국민당 명예 주석인 우포슝(吳伯雄)¹⁸⁾과 1회, 중국국민당 주석인 주리룬(朱立倫)¹⁹⁾과 1회, 중국국민당 주석인 홍슈주(洪秀柱)²⁰⁾와 1회, 친민당 주석인 송추위(宋楚瑜)와 1회, 대만 평화통일 단체와 1회, 푸젠핑탄(福建平潭)의 대만 투자자와의 1회, 대만 양안공동시장 기금회 명예회장인 소만장(蕭万长)²¹⁾과 3회 회견했고, 대만 총통인 마잉주(馬英九)와 1회 회견을 했다.

넷째, 2005년 4월 29일에 후진타오 주석과 쑨원 주석 간의 회견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양당 최고 지도자의 회견이고 1945년에 중경담판(重慶談判)²²⁾ 60년 이후 양당이 다시 만난 역사적인 회담이었고, 양안 관계는 파빙을 시작하고 교류, 협상도 하고 새 국면을 열게 된다. 그리고 2015년 11월 7일에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의 회견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양안 최고 권력자 간의 최초의 회담이었다.

IV. 분석 결과

1. 빈도분석

〈표 3〉 후진타오 주석 회견 연설문²³⁾ 빈도 조사

주석	후진타오 주석(총 12회)													평균 빈도
	2005	2005	2006	2007	2008	200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평화	5	6	22	3	14	13	3	4	3	5	11	10	99	8.25
통일	1	1	1	0	0	0	0	0	0	0	0	1	4	0.33
동포	5	10	16	4	9	30	5	2	1	1	3	9	95	7.91

18) 吳伯雄.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5%90%B4%E4%BC%AF%E9%9B%84/2869290?fr=ge_ala(검색일: 2023.09.16).

19) 朱立倫.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9C%B1%E7%AB%8B%E4%BC%A6/2821450?fr=ge_ala(검색일: 2023.09.16).

20) 洪秀柱.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B4%AA%E7%A7%80%E6%9F%B1/2352677?fr=ge_ala(검색일: 2023.09.16).

21) 蕭万长. Baidu. https://baike.baidu.com/link?url=A92jdkYYgWf-gUO5OiAmsTyDO56pXIUo1vtLelQaIkgc6QwgB0JWbwko9UPcaA9UjgnMBy4RTy6ys_3VNB3zaP_MzZONr-FQT5go0szU7H0IGPDR5XxXBkOAwi6grm_T(검색일: 2023.09.16).

22) 贺箫涵. “中国共产党在重庆谈判中的底线思维研究”, 『党史博采(理论版)』, 第3期, 2022, p.21.

23) 위에 언급한 것처럼, 두 주석의 연설문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대만에서 온 지도자, 대표단을 회견했을 때의 연설문과 기념활동때의 연설문,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연설문이다.

주석	후진타오 주석(총 12회)													평균 빈도
	2005	2005	2006	2007	2008	200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발전	12	13	28	5	17	20	10	6	5	6	14	11	147	12.3
부흥	0	2	1	1	2	1	1	0	1	0	5	1	15	1.25
중화	4	5	2	1	4	7	3	1	4	1	4	1	37	3.08
민족	5	7	2	1	3	6	4	1	5	1	6	2	43	3.58
대독	1	2	1	1	0	2	0	0	0	1	1	0	9	0.75
세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분열	0	0	0	1	0	0	0	0	0	0	0	0	0	0
무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포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표 4〉 시진핑 주석 회견 연설문 빈도 조사

주석	시진핑 주석(총 13회)														평균 빈도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2016	2018	합계	
평화	4	11	3	8	8	18	3	3	12	3	26	12	6	117	9
통일	0	1	0	1	0	15	0	0	0	1	1	0	2	21	1.61
동포	8	6	0	27	6	19	4	1	17	13	32	22	26	181	13.92
발전	10	19	5	13	10	11	9	5	14	4	33	15	4	152	11.69
부흥	4	4	1	5	2	7	0	0	4	3	6	7	7	50	3.85
중화	8	16	2	6	2	12	0	0	7	3	10	19	5	90	6.92
민족	8	14	2	12	3	13	0	0	10	12	22	14	13	123	9.46
대독	0	2	0	1	2	4	0	1	2	1	3	4	6	26	2
세력	0	1	0	0	0	2	0	0	0	0	1	1	1	6	0.46
분열	0	3	0	0	0	5	0	0	0	0	3	4	2	17	1.31
무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포기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08

* 2014년 두 번째 줄에 “포기”가 하나가 있는데 친민당 주석인 쑹추위와 회견에서 “호혜호익의 조치를 포기하지 않다”는 말에서 나옴.

〈표 5〉 후진타오 주석 기념활동 연설문 빈도 조사

주석	후진타오 주석(총 2회)			
	2005	2008	합계	평균빈도
평화	7	52	59	29.5
통일	5	27	32	16
동포	5	51	56	28
발전	4	61	65	32.5
부흥	1	9	10	5
중화	5	21	26	13
민족	7	22	29	14.5
대독	3	8	11	5.5
세력	3	3	6	3
분열	5	8	13	6.5
무력	0	0	0	0
포기	1	1	2	1

* 2005년에 “포기”가 하나가 있는데 항일전쟁 승리 기념대회에서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다”는 말에서 나옴. 2008년에 나온 “포기”도 마찬가지이다.

〈표 6〉 시진핑 주석 기념활동 연설문 빈도 조사

주석	시진핑 주석(총 7회)								
	2016	2016	2018	2019	2019	2021	2021	합계	평균빈도
평화	5	7	3	38	8	1	3	65	9.28
통일	3	9	2	46	1	2	9	72	10.28
동포	4	9	2	62	5	1	2	85	12.14
발전	4	25	5	27	10	1	1	73	10.43
부흥	2	10	1	14	3	1	6	37	5.29
중화	3	34	4	15	14	2	9	81	11.57
민족	6	44	4	34	10	1	10	109	15.57
대독	2	1	1	8	0	1	1	14	2
세력	1	2	1	6	0	0	0	10	1.43
분열	2	9	2	7	0	0	3	23	3.29
무력	0	0	0	1	0	0	0	1	0.14
포기	0	0	0	1	0	0	0	1	0.14

* 2019년 첫 번째 줄에 “포기”가 하나가 있는데 “대만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40주년 기념대회의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승낙을 하지 않다”는 말에서 나옴.

〈표 7〉 후진타오 주석 정치회의 연설문 빈도 조사

주석	후진타오 주석(총 5회)						평균빈도
	2003	2005	2007	2008	2012	합계	
평화	9	14	15	23	10	71	14.2
통일	14	12	11	6	10	53	10.6
동포	11	10	14	18	12	65	13
발전	7	7	9	24	9	56	11.2
부흥	4	0	2	1	1	8	1.6
중화	11	1	6	3	5	26	5.2
민족	6	1	4	3	5	19	3.8
대독	0	7	3	9	4	23	4.6
세력	1	2	3	1	2	9	1.8
분열	1	7	4	6	0	18	3.6
무력	0	0	0	0	0	0	0
포기	0	2	1	1	0	4	0.8

* 2005년에 “포기”가 두 개가 있는데 중국 제10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3차 회의에 제출한 “후四점”중에 있는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다”는 말과 “대독 분열세력은 반드시 대독 분열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서 나옴. 2007년에 있는 “포기”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의 연설문에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다”는 말에서 나오고 2008년에 경우는 이것과 똑같다.

〈표 8〉 시진핑 주석 정치회의 연설문 빈도 조사

주석	시진핑 주석(총 4회)				합계	평균빈도
	2016	2017	2019	2022		
평화	5	4	0	4	13	3.25
통일	0	4	0	15	19	4.75
동포	8	11	10	8	37	9.25
발전	8	10	5	7	30	7.5
부흥	1	3	0	3	7	1.75
중화	2	6	0	5	13	3.25
민족	1	6	1	5	13	3.25
대독	1	1	0	4	6	1.5
세력	0	0	0	6	6	1.5
분열	2	4	0	5	11	2.75
무력	0	0	0	1	1	0.25

주석	시진핑 주석(총 4회)					
	2016	2017	2019	2022	합계	평균빈도
포기	0	0	0	1	1	0.25

* 2022년에 “포기”와 “무력”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무력사용을 포기한 승낙을 절대로 하지 않다”는 말에서 나옴.

<표 3>과 <표 4>는 두 주석의 회견 연설문에 대한 빈도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표 5>과 <표 6>는 두 주석의 기념회의 연설문에 대한 빈도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표 7>과 <표 8>는 두 주석의 정칙회의 연설문에 대한 빈도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빈도 조사의 키워드는 “평화”, “통일”, “동포”, “발전”, “부흥”, “중화”, “민족”, “대독”, “세력”, “분열”, “무력”, “포기” 등을 포함한다. 빈도조사의 결과를 보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회견 연설문의 분석결과]

첫째, 연도별로 보면,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부터 처음 국민당 주석인 쑨원을 회견한 후에 해마다 적어도 한번 대만에서 온 지도자, 대표단을 만나고 연설문을 발표했다. 또한 제1차 임기에 모두 4번을 회견하고 연설문을 발표했지만 제2차 임기에서는 8번을 회견하고 연설문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2013년에 3번의 회견, 2014년에 5번의 회견, 2015년에 3번의 회견을 했는데 총 13회의 회견 연설문 중에서 1차 임기 첫 3년에 11회의 회견 연설문이 집중되어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에 한번도 회견한 것이 없었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4년 동안에 회견 하나도 없는 것은 특이하다.

둘째, 연도에 따라 주요 키워드에 변화가 있다. 특히 “통일”, “세력”, “분열”이란 세 핵심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과 2006년에 대만 지도자들과 회견했을 때 “통일”이란 말을 제시하지만 그 이후에 얘기하지 않고 퇴임한 2013년에만 다시 언급했다. 통일이란 말을 대신하여 “발전”이란 단어가 더 빈번하게 출현했다. 다시 말하면, 후진타오는 임기 동안 대만 지도자를 만났을 때 통일에 관한 말을 거의 얘기하지 않았고 “세력”, “분열”이란 말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모든 회견에서 최소 한번 “통일”이란 말을 대만 지도자, 대표단에게 얘기했고, 2014년에 대만에서 온 평화통일 대표단을 회견했을 때는 15번이나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세력”, “분열”이란 말은 2015년,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한번씩 언급했다.

셋째, 회견 연설문 키워드의 평균빈도를 보면, 후진타오 주석은 강조한 단어들의 순위는 발전(12.3), 평화(8.25), 동포(7.91), 민족(3.58)이고 시진핑 주석은 강조한 단어들의 순서는 동포(13.92), 발전(11.69), 민족(9.46), 평화(9)이다.

[기념대회 연설문 분석결과]

기념대회 연설문에 대한 평균빈도를 보면, 후진타오 주석이 강조하는 키워드의 순위는 발전(32.5), 평화(29.5), 동포(28), 통일(16), 민족(14.5), 중화(13), 분열(6.5), 대독(5.5), 부흥(5), 세력(3), 포기(1), 무력(0) 순이었고 후진타오 주석의 기념대회 연설문에 있는 키워드의 순위는 회견 연설문 키워드의 순위와 거의 똑같다. 시진핑 주석의 기념대회 연설문에 있는 키워드의 순위는 민족(15.57), 동포(12.14), 중화(11.57), 발전(10.43), 통일(10.28), 평화(9.28), 부흥(5.29), 분열(3.29), 대독(2), 세력(1.43), 무력과 포기(0.14) 순이다. 시진핑의 기념대회 연설문과 회견 연설문의 키워드 순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평화라는 키워드는 회견 연설문에서는 4위, 기념대회 연설문에서는 6위를 차지한다.

또 하나는 두 주석은 다 “포기”란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후진타오 주석은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다”는 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시진핑 주석은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승낙을 하지 않다”는 말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정치회의 연설문 분석결과]

정치회의는 중국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권위적인 회의이어서 두 주석의 이런 회의에서 발표된 대만 연설문을 분석하면 중국의 대만 정책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후진타오 주석의 정치회의 연설문의 키워드 평균빈도를 분석해보면 평화(14.2), 동포(13), 발전(11.2), 통일(10.6), 중화(5.2), 대독(4.6), 민족(3.8), 분열(3.6), 세력(1.8), 부흥(1.6), 포기(0.8), 무력(0) 순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치회의 연설문의 키워드 평균빈도를 보면, 동포(9.25), 발전(7.5), 통일(4.75), 평화와 중화와 민족(3.25), 분열(2.75), 부흥(1.75), 대독과 세력(1.5), 무력과 포기(0.25)의 순이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연설문에서 평화에 대한 평균빈도는 각각 14.2와 3.2로서 빈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시 주석이 가장 많이 사용한 핵심어인 동포라는 단어의 빈도도 9.25였다(후 주석 연설에서 동포의 빈도는 13회). 정치회의 연설문의 빈도분석을 해보면 시진핑 주석의 대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회의 연설문의 “통일”이란 워드를 보면, 후진타오 주석의 빈도수는 점차 적어지

는데 시진핑 주석은 2022년에 15번이나 제시한다. 두 주석은 또한 다 “포기”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의 경우는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다”는 말과 “대독 분열세력은 반드시 대독 분열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시진핑 주석은 “무력”과 같이 사용하여 “무력사용을 포기한 승낙을 절대로 하지 않다”는 문맥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분석결과]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동일한 주제의 연설문을 비교해도 차이가 분명하다. <표 9>의 분석결과를 보면 후진타오 주석은 민족과 통일보다는 발전과 평화에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하는데 반해서, 시진핑 주석은 민족과 통일을 더 강조한다.

<표 9>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키워드의 빈도 비교

키워드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문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
민족	22	34
통일	27	46
발전	61	27
평화	52	38

2. 담론분석

이 논문에서는 담론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텍스트 내적 관계 분석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양안관계 및 국제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후진타오 주석의 2006년 이후 회견 연설문에서 사라진다. 2005년에 국민당 주석인 쑨원지의 회견, 친민당 주석인 쑹추위의 회견, 2006년에 다시 국민당 명예 주석인 쑨원지의 회견에서는 “통일”이란 단어를 언급했지만 그 이후 회견에서는 더 이상 통일을 언급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도 2014년 대만 평화통일 대표단을 회견했을 때 외에는 다른 회견 연설문에서 통일이란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국민당이 대만의 여당이 되고 마잉주가 대만 총통이 되어 공산당과 국민당이 협력하는 기초가 형성되었고, 당시 중국은 미국의 반 테러전쟁을 지지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양안관계

와 국제정세 등 외부 환경이 호전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담론들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2022년 시진핑 주석은 정치회의연설문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연설문에서 “무력사용을 포기한 승낙을 절대로 하지 않다”는 담론은 마잉주 총통 이후에 대만 정국의 변화, 특히 대만 민진당이 “92공식(九二共识)”을 인정하지 않는 담론²⁴⁾과 결합되어 발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 대만 총통 리덩후이(李登輝)부터 나타난 두 개의 중국(两个中国), 한 개의 중국과 한 개의 대만(一中一台)등의 담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르분석”과 관련해서 대만 연설문은 발표하는 중국주석은 물론이고 듣는 대만 지도자, 대표자, 중국 대륙의 정부 인원과 일반 민중들 모두 주석의 대 대만 연설문이라는 장르의 구축을 받는다. 실제의 중국 대륙의 외교와 대 대만 연설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많다. 예컨대, “3통”이란 것도 양안 간의 교류가 심화하면서 실현했다²⁵⁾. 대 대만 연설문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대륙의 대 대만 정책의 변화와 전망을 예측할 수 있어서 주석들의 대 대만 연설문의 연구는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스타일 분석”과 관련해서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자기 동일시를 찾아보면 시진핑 주석은 임기 동안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포함한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훌륭한 지도자의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연설문에서 “위대한 조국은 모든 애국과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든든한 배경이다”는 말에서 중국의 주석은 대륙 민중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만 민중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이 논문은 후진타오와 시진핑 주석의 대만 관련 연설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두 주석의 연설문이 당시 중국의 대만 정책, 대만 내정, 양안 관계, 그리고 외부 환경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는 “평화,” “통일,” “발전,” “중화,” “민족,” “무력,” “포기”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후진타오와 시진핑 주석의 대만 관련 인식과 정책

24) 张建, 方郅中. “九二共识何以重要:论两岸关系和平发展的共同政治基础”, 『台湾研究集刊』, 第2期, 2023. p.33.

25) 唐永红. “新形势下两岸经济关系发展前景展望”, 『统一论坛』, 第5期, 2016. p.47.

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발견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핵심어의 빈도분석을 통해서 후진타오와 시진핑 두 주석 시대의 대만 연설은 중국 경제의 발전, 대만 정국의 변화,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의 변화상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포기”라는 키워드를 비교하면, 후진타오 주석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평화통일이었고, 시진핑 주석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력 사용의 승낙이었는데 이것은 두 주석의 대만 정책 및 태도의 변화를 반영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고, 반면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냉담한 대만 위협 연설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론 변화는 차이잉원 총통 시기의 양안 관계 불안정성과 지역 정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담론의 외적 관계, 혹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실천에서 보면 차이잉원 대만 정부의 “대독” 담론은 앞으로는 자신의 방위력을 더 강화하는 담론과 연결되면서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일본과 한국에 도움도 요청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더 강경한 대만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만정책은 후진타오 시대의 “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 정책목표가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만정세, 양안관계의 긴장고조, 미중관계와 중일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종합 실력이 미국보다 낮았고 주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시진핑 시기에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하며 경제, 군사, 기술적 실력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의 임기 동안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시기가 겹쳤는데, 이때는 미중 간 협력이 강조되었던 반면 시진핑 주석의 임기 동안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갈등이 더 두드러졌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 임기 동안 대만 총통은 국민당의 마잉주이었는데 그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시진핑 시기의 민진당의 차이잉원은 총통이 된 후에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 독립을 모색했다.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진핑 주석의 제3 임기 동안 대만 정책과 인식의 향방을 예측해보면, 주석들의 대만 인식은 주로 미중의 힘의 균형, 미중관계, 양안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대만에 대한 정책이 더 공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중 간의 힘관계가 중국에게 불리하거나 후진할 경우 중국은 국내 발전에 더 집중하면서 대만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또한 다가올 대

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후보자나 “대만 독립”을 모색하는 후보자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만 정책과 주석의 대만인식도 변화할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의 대만 정책과 주석의 대만 인식은 미중 힘관계의 균형, 미중 정세, 대만의 국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공격적 또는 소극적 정책 사이를 오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Gee, James Pau 지음, 이수원, 임민정, 박수경 역. 『담론분석 입문: 이론과 방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7.
- 김나영,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담화 관행 비교를 중심으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6호,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2021.
- 양기웅, 안정화. “탈냉전기 일본총리의 한반도 및 한일관계 인식변화(1991~2013): 국회소신표명 연설 분석”, 『한립일본학』, 제25권, 일본학연구소, 2014.
- 최윤선. 『비판적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14.
- 황창호, 이혁우, 임동완.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9권,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
- K. M. Davis and W. L. Gardner, “Charisma under crisis revisited: Presidential leadership, perceived leader effectiveness, and contextual influences,” *The Leadership Quarterly*, Vol.23, No.5, 2012.
- 汤水清, “对辛亥革命历史意义的新思考”, 『江西社会科学』, 第10期, 2011.
- 杨卓林, “2004年台湾地区选举的影响分析”, 『深圳职业技术学院学报』, 第3期, 2004.
- 贺箫涵, “中国共产党在重庆谈判中的底线思维研究”, 『党史博采(理论版)』, 第3期, 2022.
- 张建, 方郅中. “‘九二共识’何以重要:论两岸关系和平发展的共同政治基础”, 『台湾研究集刊』, 第2期, 2023.
- 唐永红. “新形势下两岸经济关系发展前景展望”, 『统一论坛』, 第5期, 2016.
- “全国人大常委会《告台湾同胞书》(1979年1月1日)”, 新华网, <http://tga.mofcom.gov.cn/article/zyjh/200603/20060301721770.shtml>(검색일: 2023.09.16).
- 海峡飛虹(中文網).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B5%B7%E5%B3%A1%E9%A3%9E%E8%99%B9/2578054?fr=ge_al(검색일: 2023.09.16).
- 连战, Baidu, https://baike.baidu.com/link?url=yZW3mLzKv0LLOGvsf-FRRepy26vKTgcAM0hljowV1uyt56qHOrTtmp4iAMkXcuvNAE-lPEqNjesl0GKkZmskj5Y7B0yKre_cz-XsYYdn8CV4K(검색일: 2023.09.16).
- 海峡交流基金会,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B5%B7%E5%B3%A1%E4%BA%A4%E6%B5%81%E5%9F%BA%E9%87%91%E4%BC%9A/2441340?fr=ge_al(검색일: 2023.09.16).
- 两岸共同市场基金会,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4%B8%A4%E5%B2%B8%E5%85%B1%E5%90%8C%E5%B8%82%E5%9C%BA%E5%9F%BA%E9%87%91%E4%BC%9A/7130237?fr=ge_al(검색일: 2023.09.16).

福建平潭,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5%B9%B3%E6%BD%AD%E5%8E%BF/3450025?fr=ge_ala.(검색일: 2023.09.16).

马英九, Baidu. https://baike.baidu.com/link?url=yC83NcY4Y-D0gqSaX-o4hppagURPeTCmlATNfYZe-wRLH5HEW_sFbpUROwJ5AeWWIG9eGC9hEXI2G6tABEdLolx0y2DCEg_IDhN1rlbMdlSyzWVMtbq3CocUxCAUAml(검색일: 2023.09.16).

央視網,, www.cctv.com(검색일: 2023.09.16).

吴伯雄,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5%90%B4%E4%BC%AF%E9%9B%84/2869290?fr=ge_ala(검색일: 2023.09.16).

朱立倫,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9C%B1%E7%AB%8B%E4%BC%A6/2821450?fr=ge_ala(검색일: 2023.09.16).

洪秀柱, Baidu. https://baike.baidu.com/item/%E6%B4%AA%E7%A7%80%E6%9F%B1/2352677?fr=ge_ala(검색일: 2023.09.16).

萧万长, Baidu. https://baike.baidu.com/link?url=A92jdkYYgWf-gUO5OiAmsTyDO56pXIUo1vtLeIQaIkgc6QwgB0JWbwko9UPcaA9UjgnMBy4RTy6ys_3VNB3zaP_MzZONr-FQT5go0szU7H0IGPDR5XxXBkOAwI6grm_T(검색일: 2023.09.16).

【 Abstract 】

Comparing Perceptions of Taiwan in the Hu Jintao and Xi Jinping Eras:
Analysis of speeches by Chinese Presidents on the Taiwan issue

Junguo Liu · Kiwoong Yang

This paper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speeches by President Hu Jintao and President Xi Jinping, published on the Hǎixiá Fēihóng Zhōngwén Wǎng (Straits Fly Rainbow Chinese Network), a network media affiliated with China International Broadcasting, primarily reporting on exchanges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The speeches were organized chronologically, spanning from President Hu Jintao's appearance in 2003 to the end of President Xi Jinping's second term in 2022. The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of these speech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the “frequency analysis,” President Hu Jintao rarely used keywords like “unification,” “independence,” or “division” in his speeches. Instead, he frequently employed terms such as “peace,” “development,” “Chinese culture,” and “compatriots.” In contrast, President Xi Jinping used keywords like “unification,” “independence,” and “division,” especially during his second term, where these terms appeared more frequently. Additionally, President Xi Jinping's speeches during his second term contained fewer references to Taiwan, and included more assertive terms like “not ruling out the use of force.”

Moreover, through “discourse analysis,” it became evident that President Hu Jintao maintained a warm and cooperative attitude towards cross-strait relations during his tenure, aiming for peacefu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President Xi Jinping, particularly in his second term, exhibited a more cold and confrontational approach in his speeches related to Taiwan.

In conclusion,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eeches by Presidents Hu Jintao and Xi Jinping sheds light on their evolving perceptions and policy priorities regarding Taiwan

during their respective leadership periods.

Key Words : President, Taiwan, Speech, Frequency Survey, Discourse Analysis, China